

# “중무장 병력 없는데 美보다 안전” 해외언론들 엄지척

요즘 해외언론의 눈에 비친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가 안전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오랫동안 대치하고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 등 초강대국 대결이 날 것 같은 위험한 뉴스만 나오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올림픽이 이처럼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러지는 것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받거리 어디를 돌아다녀도 위협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안전이 보장된 나라다. 게다가 이전 올림픽과 달리 평창은 경기장 주변에 엄청난 경찰인력이나 군인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치안상태가 좋고 안전이 잘 유지된다.

##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평창과 대한민국의 안전함

미국의 USA투데이는 20일(한국시간) “한국은 총기규제법 때문에 대량 살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설명했다. 현지파견된 기자는 “지난 올림픽과는 달리 중무장한 병력을 볼 수 없다”고 했다. USA투데이는 “이런 행사라면 중무장한 병력이 있을 줄 알았다. 보안요원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낯설다”는 미국시민의 반응도 실었다.

예상 못한 안전에 외신기자들은 숨은 비결을 궁급해 했다. 최근 대회조직위원회의 일간 브리핑에서 “군인이나 경찰을 많이 배치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외신기자도 있었다.

USA투데이는 평창올림픽이 안전한 이유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강력한 총기규제 덕이다.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은 총기를 소유한다. 미국에는 3억 정도의 총기가 있지만 한국에는 51만 정도의 총기가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대비 총기보유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USA투데이는 “고향 친구들이 내게 북한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여기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는 어느 주한 미군의 이야기도 전했다.

## ●평창올림픽의 치안과 보안 대비상황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경계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다. 감시카메라와 무인정찰기 등 첨단감시 장비를 사용해 위화감을 주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감시하고 있

다”면서 스마트한 보안시스템을 자랑했다. 현재 평창에는 지능형 CCTV(810대), 드론, 무인비행기, 전술비행선, 차량형 X-ray 검색기(3대), 차량 하부감색장비, 얼굴인식시스템 등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당연히 보안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이다.

조직위원회는 “하루 최대 경찰관 1만3000명, 군인 5000명, 소방대원 700명, 민간인 2400여명이 투입된다. 외곽경계를 위해 산에 매복한 인력들을 뺀 숫자다. 보안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할 순 없지만 훨씬 많은 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을 들고 2중 3중의 경계근무와 매복순찰도 한다. 올림픽선수촌 안에는 사복을 입은 안전요원들이 소프트 테러에 대비해 관광객으로 가장해 움직이는 등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근무한다”고 했다.

## ●역대 동계올림픽의 보안대책은 어땠나?

사실 초창기 올림픽 때는 보안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올림픽은 평화를 위한 젊은이들의 축제였다. 경기장의 질서유지와 많은 관중들이 모이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에만 신경을 썼다. 그러나 대회규모가 커지고 2차례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과 테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보안과 선수단 및 관중의 안전은 올림픽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역대 동계올림픽 가운데 보안으로 화제가 된 대회는 1976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대회다. 1972년 뮌헨올림픽의 선수촌 테러공격 바로 뒤에 열린 대회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다.

뮌헨대회 때 선수촌의 답장을 넘어와 이스라엘 선수단을 습격했던 검은9월단의 테러에 독일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지금과 같은 테러전담 조직이 없었기에 더 우왕좌왕했다. 사복으로 변장한 경찰이 현장을 제압하려고 이스라엘 속소를 침투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정도로 대응방법은 엉터리였다.

당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인스부르크대

회 조직위원회는 “싸움 없는 올림픽”을 선언하고 엄청난 인원의 무장군인과 특수경찰을 동원했다. 수 천명이 넘는 이들은 전투복 차림으로 군견과 함께 주경기장, 올림픽 선수촌과 각 경기장 주변을 순찰했다. 이들은 모든 출입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했다.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도 경비가 삼엄했다. 2001년 발생했던 뉴욕 9.11테러 이후 벌어진 대회여서 치안을 강화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졌다. FBI와 군인 경찰 정보국에서 나온 1만 2000명의 요원이 치안을 담당했다.

2010 러시아 소치 대회는 역대 동계올림픽 가운데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로 통하는 단 하나의 길목만을 개방하고 연방보안국 요원들을 배치해 등록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했다. 러시아는 이슬람 세력 등의 테러위협에서 선수단과 방문객을 보호한다며 소치를 중심으로 가로 70km, 세로 100km의 특별 경계구역을 설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무려 10만명이 넘는 경찰과 치안요원 군인을 소치에 투입했다. 조직위원회는 보안과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무려 1조8550억원을 썼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프랑스의 마르탱 푸르크아드가 18일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15km 매스스타트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미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그의 대회 4관왕 달성 여부에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평창 | AP/뉴스

## ‘바이애슬론 황제’ 푸르크아드, 멈출 줄 모르는 금빛 레이스

푸르크아드, 혼성 계주 역전 우승 3관왕  
23일 열리는 남자 계주서 4관왕 도전

‘바이애슬론 황제’ 마르탱 푸르크아드(30·프랑스)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주목받은 건 18일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15km 매스스타트였다. 동갑내기 지문 헬프(독일)와 결승선을 거의 동시에 통과해 메달 색깔을 가리기 위해 사진판독까지 갔다. 4년 전 소치 대회에서 사진판독으로 금메달을 놓친 뼈아픈 기억 탓인지 결승선에서 쓰러진 뒤 쥐고 있던 스키를 내팽개쳤다. 이번에는

우였다. 판독결과 헬프보다 14cm가 앞서며 단상 맨 위에 올랐다.

푸르크아드가 또 한번 조명을 받았다. 평창올림픽 첫 3관왕에 오른 덕분이다. 2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혼성 계주에서 프랑스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1시간 8분 34초 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선두에 38초나 뒤진 채 바통을 이어받은 푸

르크아드는 사격에서 10발 모두를 깔끔하게 명중시키며 역전 우승을 이끌었다. 2위 노르웨이와 무려 21초나 차이를 낼 정도로 최종 주자로 나선 황제의 위용은 대단했다.

소치 대회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된 혼성계주는 남녀 각 2명이 한 팀을 이룬다. 여자는 6km, 남자는 7.5km를 각각 주행해 총 27km를 달리는 경기다. 사격은 선수마다 복사와 입사 5발씩 총

10발을 쏜다. 푸르크아드는 주행과 사격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뽐냈다. 그는 “1년 중 220일 이상을 함께 하며 훈련해왔다. 이런 훈련 덕분에 함께 금메달을 딴 건 매우 특별하다. 우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 충분히 즐기고 싶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써 푸르크아드는 이번 대회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미 바이애슬론 12.5km 추적과

15km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했다. 20일 현재 프랑스가 얻은 5개의 금메달 중 3개를 푸르크아드가 책임지며 프랑스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아울러 통산 5개의 올림픽 금메달로 동계와 하계를 통틀어 프랑스 최다 금메달 선수로 우뚝 섰다. 푸르크아드의 금메달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3일 열리는 남자 계주를 통해 평창대회 4관왕에 도전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 비싼 숙박비 걱정? 제3의 도시 있잖아!

### 주요 숙박도시에 ‘관중셔틀버스’ 운영

평창대회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목이 있었다. 바로 숙박문제. 지방도시에서 대회가 열리다보니 숙소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걱정이 많았다.

실제로도 그랬다. 평창과 강릉에 있는 4~5성급 특급호텔과 리조트들은 처음부터 일반인들

의 예약을 받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주요 스폰서 임직원,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수행 요원들을 위한 조치였다. 올림픽 주관방송사 미국의 NBC도 IOC의 협조를 구해 강릉 경포해수욕장 인근의 고급 호텔을 통째로 예약했다.

몇몇 리조트와 콘도미니엄들이 숙박 기회를 제공했지만 기존회원의 예약을 우선으로 하면

서 대중에게는 기회가 사실상 돌아오지 않았다. 또 어렵게 관광 일정과 예약가능 일자를 맞추어도 만만치 않은 숙박요금에 망설여야 했다.

여기서 며칠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꿀팁 한가지. 굳이 평창과 강릉만 고집하지 말고 인근의 원주, 고성, 속초, 양양, 정선 등지에 머물며 지역 관광과 경기 관람을 동시에 즐기는 방법도 있다.

서울~강원을 잇는 고속열차를 이용한 당일치기 코스도 있지만 늦은 밤에 끝나는 경기들을 보고나면 열차 시간을 맞추기가 애매하다. 한국

여행이 낯선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불편하다. 숙박은 불가피하다.

이럴 때 강릉 평창만 고집하지 않으면 훌륭한 숙소들을 인근 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주요 호텔예약사이트에서 확인한 평창 외곽의 펜션과 숙소 특급호텔의 가격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설 명절 등 특수기간이 끝나고 평상으로 돌아가면 훨씬 요금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좋다. 대회조직위가 9일부터 주요 숙박도시의 숙소들과 평창·강릉을 연결하는 무료 예약제 관중셔틀버스를 운영해 이동이 불편하지도 않다.

물론 단점은 있다. 동계올림픽 특유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기기는 어렵다. 셔틀버스 배차간격이 30~120분이고 이동시간도 45분 이상 걸린다.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주요 수송 물자를 잇는 셔틀버스에 정확히 승차해야 한다. 그래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 외국인들도 검증된 호텔체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선호한다. 최근 제 3의 지역에 해외 투숙객들이 급증한 배경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